



“잘못된 과거 고쳐야 미래를 바꿀수 있죠”

‘미생’과 ‘시그널’... 흥행 연타 친 김원석 PD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우연한 계기로 과거와 연결되고, 그가 과거를 바꾸게 되면서 현재도 변한다는 설정은 사실 새롭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의 형사와 과거의 형사가 무전기를 통해 소통하면서 사건을 해결해간다는 내용의 tvN ‘시그널’은 “수준이 다르다”는 찬사를 받으며 큰 인기를 얻었다.

2014년 현실적인 직장인의 삶을 그린 드라마 ‘미생’에서 tvN의 시대를 연 김원석 PD는 ‘타임워프’를 소재로 한 이 비현실적인 드라마로 연타석 흥권을 날렸다. 이번에도 특유의 세밀한 연출이 무기였다.

종영을 나올 앞둔 9일 김원석 PD를 전화로 만났다.

김 PD는 “시그널”을 통해 ‘벌 받아야 할 사람이 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서처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과거로 돌이키지 않아도) 미래는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무전기로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고, 현재의 정보로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세 주인공이 과거부터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판타지적인 설정을 견어 내고 나면 아버지의 권력 덕에 법의 심판을 피한 어떤 이와 그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서민, 얽히고설켜 이해관계로 수사가 중단된 탓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연쇄살인 피해자와 같은 ‘아픈 현실’이 보인다.

김원석 PD는 “(극 중 사건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지만 실제 사건과 같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실제 사건을 합친 경우도 있다”며 “실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에게 혹시 도리어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작가님과 고문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시그널”은 방송 내내 연일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 종영을 한 주 앞둔 지난 방송분은 11.1%(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를 기록했다. 전작 ‘응답하라 1988’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19.6%라는 대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따뜻하고 즐거운 가족극이었음을 고려하면 무섭고 아픈 미스터리 수사극 ‘시그널’이 낳은 성과는 놀라다.

그는 “사건을 해결해가는 장르드라마의 기본 재미에,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이야기가 잘 녹아있는 대본이 무엇보다 좋았던 것 같다”며 “좋은 대본을 스태프와 연기자가 열심히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좋게 봐주시게 아낀 거 같다”고 말했다.

“시그널”은 2014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미생’ 이후 2년여 만에 선보인 작품. 부답은 없었을까.

“사실 미생이 잘돼서 오히려 한시를 놓았죠. 사람이 하는 일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거니까요. 후속작(시그널)이 잘 안 되더라도 (미생)이 잘 됐다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생”의 시청자가 그랬지만 ‘시그널’을 본 시청자들도 시즌 2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작가님, 배우분들, 스태프 모두 같이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을 봐야 할 것 같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희망을 밝혔다. /연합뉴스



밀려드는 스케줄에 과부하 걸린 스타들

걸스데이 헤리 뇌수막염·EXID 하니 장염... 정형돈 부재 장기화

“몰 들어올 때 노 저어라”란 말이 있다. 연예계에선 “잘 나갈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왕성하게 활동하라”는 뜻으로 통한다. 그러나 보니 인기 상승세를 탄 스타들은 밀려드는 일정을 부지런히 소화하다가 과부하가 걸리곤 한다.

“대세 소녀들”인 걸스데이의 헤리와 이엑스아이디(EXID)의 하니도 결국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응팔’)로 스타덤에 오른 헤리는 며칠 간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다가 지난 6일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강북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헤리는 지난해 여름 걸스데이의 앨범 활동을 마치고 연이어 ‘응답하라 1988’ 촬영을 시작했다. 이 드라마가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면서 최근까지 매체 인터뷰와 ‘응팔’ 관련 행사, 광고 촬영 등을 진행했다.

소속사 드림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헤리가 ‘응팔’을 마친 후 인터뷰와 선풍집 방송 출연 외에 밀려 있던 광고·화보 촬영이 많아 바빠다”며 “강행군을 헤쳐나가 많이 소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헤리가 아직 고열이 있는 상태”라며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고 호전되는 걸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리에 앞서 하니도 지난 달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한 달가량 휴식을 취한다고 밝혔다.

하니 역시 2014년 말 이엑스아이디의 ‘위아래’ 열풍 이후 앨범과 각종 예능 프로그램 활동을 하느라 피로가 누적됐다. 소속사 바나나키펠 관계자는 “‘위아래’가 히트하고서 하니가 1년 반가량 쉬질 못했다”며 “이엑스아이디의 행사 스케줄뿐 아니라 방송 등 개별 활동이 많아 하루 3~4시간 잤다. 늘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상태도 보니 면역력이 떨어져 평소 않던 장염이 낫지 않아 휴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속소 생활을 하던 하니는 현재 부모가 사는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

지난해 11월 불안장애로 활동을 전면 중단한 방송인 정형돈은 5개월째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약하던 그는 오래전부터 알아 온 불안장애가 심해지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자 결국 휴식을 결정했다.

당시 그는 MBC TV ‘무한도전’과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JTBC ‘냉장고를 부탁해’, MBC에브리원 ‘주간아이돌’ 등 굵직한 예능 프로그램을 이끌던 터라 방송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김성주는 지난달 3주가량 휴식을 취한 뒤 이달 복귀했으며, 전현우는 지난 1월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라디오 프로그램을 며칠간 진행하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24시간을 쯤까 쉴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활동량이 많은 스타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수면 부족과 함께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결국 과로로 쉬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상황을 맞았다.

한 음반기획사 홍보실장은 “헤리처럼 노래와 연기를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역할 수행이 다양한 경우 체력 소진뿐 아니라 중앙갑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일반 직장인도 피로감이 높겠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의 경우 스케줄이 한꺼번에 폭주해 가장 중요한 건강을 놓치지 일 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0일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미언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사설 (내 마음의 꽃비)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11	40 풍문으로 들었SHOW(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통)	00 공사창립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재)	00 주말특별기획 (결혼계약)(재)	00 닥터 365 05 토크콘서트 화룡
12		55 안녕 우리말(재)			
1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00 공사창립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재)	00 MBC 정오뉴스	00 SBS 12 뉴스
2	30 직연직실	00 가요무대	05 인간극장 스페셜	20 앙코르 MBC 다큐스페셜 (대한 전쟁)	05 닥터 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3		00 역사의 현장		20 영접의 CEO들 스페셜	20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
4	00 패도나마	00 오늘의 경제	00 KBS 뉴스타임	20 텔레온스터(재)	00 세상발견 유라기(재)
5	4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5	10 생활의 발견(재)	25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00 3시 뉴스 브리핑
6		00 6시 내고향		55 텔레온스터(재)	55 닥터 365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00 MBC 뉴스	
8	20 나는 몸신이다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끝단지)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10 헬로키즈 파이널스	
9	50 서민간부	00 KBS 뉴스9		55 프리파라	
10		00 KBS 스페셜	00 TV 유치원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세기의 대결 이세돌vs알파고
11	00 아내가 났다	00 KBS 뉴스라인	30 이욱정PD의 자연속 담은 한끼	00 MBC 뉴스	
12	40 에메이징 스토리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 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헬로키즈 파이널스	

EBS1

3월 10일 (음 2월 2일 辛卯)

05:00 EBS8 생활 영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0 세계사 시간여행	20:40 다큐오늘
05:30 건강한 아침	〈돼지양념구이, 삼각오이생채〉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일본인 히야토의 서커스 극단〉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11:00 세계태미기행 (재)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20:50 세계태미기행
〈요리의 탄생 신사 국수〉	11:40 한국기행	15:50 바오밥섬의 파도파오	〈열대의 푸른 낙원, 태국 4부〉
06:10 세계의 눈	12:00 EBS10 뉴스	16:00 골디와 친구들(재)	성영의 춤수, 탈레나이)
〈불-지중해에서 알프스까지〉	12:10 통일의 길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1:30 한국기행
07:00 지파티스(재)	(복한 삼시세끼)	16:45 똥덩이 유치원 1~3(재)	〈마산, 시간은 추억이 되어〉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40 역사채널e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7:45 뽕뽕뽕 뽕뽕로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7:45 뽕뽕뽕 뽕뽕로(재)	(2015 신 결승속속도 2부)
08:00 똥덩이 유치원 1~3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50 이팝! 스페이스 정글	19: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09:00 골디와 친구들	14:00 코코몽2	19:30 EBS 뉴스	〈한국에 산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23:50 역사채널 6(재)
09:40 달라졌어요	15:00 모피와 친구들	〈내 몸의 중심 축추를 지켜라〉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2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차하고 핵심적 대상에 집중하라. 54년생 지금 시비를 명백하게 가려두지 않는다면 후환을 초래할 수 있다. 66년생 보충하여 덧붙일 필요가 있다. 78년생 음양이 교차하다가 일정을 이룬다. 행운의 숫자 : 10, 31

49년생 암운이 떠다니 신중해 처신해야만 할 것이니라. 61년생 고역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73년생 점점 쌓이고 깊어지면서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85년생 결과에 정착하지 않아야 성과가 더 크다. 행운의 숫자 : 14, 74

50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 무조건 전진해야 한다. 62년생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수월해지리라. 74년생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것이 안전하다. 86년생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잔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8, 01

51년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갖자. 63년생 오름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게 마련이니 용기를 잃지 마라. 75년생 쉽게 관철될 수 있는 손조로움이 보인다. 87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이다. 행운의 숫자 : 43, 07

40년생 조인을 구해낸다면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다. 52년생 복합적 파생 효과가 크다. 64년생 추이를 지켜봐야 할 판국이다. 76년생 지나질 뻔한 것 속에 귀중함이 있다. 88년생 늦을수록 불리하니 할 일을 미루지 마라. 행운의 숫자 : 69, 58

41년생 정성으로써 도움을 받는다 한다면 복 받을 것이다. 53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자. 65년생 효과가 커진다. 77년생 내색할 필요는 없다. 89년생 섀스 있게 대처하고 재치 있게 판단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2, 75

42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차하고 핵심적 대상에 집중하라. 54년생 지금 시비를 명백하게 가려두지 않는다면 후환을 초래할 수 있다. 66년생 보충하여 덧붙일 필요가 있다. 78년생 음양이 교차하다가 일정을 이룬다. 행운의 숫자 : 10, 31

43년생 큰 거둠을 잡고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55년생 하다가 조정하면 될 것이니 일단 시작해 놓고 볼 일이다. 67년생 호사다마요, 새옹지마로다. 79년생 소신이 있어야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니라. 행운의 숫자 : 52, 20

44년생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자. 56년생 무조건 밀어붙이거든 하면 모두 이루어지겠다. 68년생 몇 발자국 물러나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행상이 보이리라. 80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61, 77

45년생 구체적인 것 없으면 뜬구름에 불과하다. 57년생 분수와 격에 맞아야 순조로울 것이다. 69년생 잠시 중단한 후에 만면하게 판단할 일임을 명백히 알라. 81년생 과거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현연히 대하라. 행운의 숫자 : 34, 48

46년생 배가 된 노력이 경주돼야 승산이 있다. 58년생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을 알라. 70년생 행세를 타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82년생 끈질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23, 84

47년생 분위가 파악을 못 한다면 우순은 끝이 되리라. 59년생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옳다. 71년생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83년생 역할에 충실하면 자연히 정리된다. 행운의 숫자 : 85, 79